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개발된 한국인 용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50대에 이르는 전국의 성인 남녀 1183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 1문항 용서 질문, 분노 척도, 불안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용서 척도는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 = .95$)를 보여주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하였다($r = .85$).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 용서 척도의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1문항 용서 질문에서 더 많이 용서했다고 반응했고, 용서 집단은 비용서 집단보다 용서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한국인 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용서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용서척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20-50대에 이르는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한국인 용서 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09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영희, (132-714)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용서가 인간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은 역사, 신학, 철학, 문학의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용서는 “승고한”(Morrow, 1984), “회복적인”(Murphy, 1982), “인간적인”(Calian, 1981), “용기 있는”(Cunningham, 1985), “건강한”(Hope, 1987)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용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내적인 것으로 용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을 통해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박종효, 2003; Enright & Fitzgibbons, 2000).

용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용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Gouldner, 1973). King(2003/2006)에 따르면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한 사람들은 살인범들과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형제도 폐지와 회복적 정의¹⁾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 지역, 국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hriver, 199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오랜 인종갈등을 용서를 통해 치유하려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손운산, 2009).

그러나 이러한 용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용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신학과 철학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심리학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용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 행위가 아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만 생각되어졌다.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은 뒤늦게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서는 특히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다.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 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용서가 분노, 우울, 불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 충동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희망,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분노감정의 통제, 부부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오영희, 2004, 2007; Controneo, 1989; Enright & Fitzgibbons, 2000). 즉, 심리학적 연구들은 용서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용서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표는 분노, 우울, 불안이다. 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외국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용서는 분노와 $-.26 \sim -.44$, 우울과 $-.34 \sim -.51$, 불안과는 $-.15 \sim -.43$ 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Mullet, Neto & Rivere, 2005).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박종효, 2006; 오영희, 2004, 2007).

또한 용서는 신체건강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생리학적 매개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1)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김준호 등, 2003).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박종호, 2003).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로 ‘한’을 이야기하고, 한과 관련된 ‘화병’이라는 고유한 정신장애를 논의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상처를 받고난 뒤 그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민성길, 1991). 용서는 부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의 문제해결방법으로서 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희, 1995).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용서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김광수, 2002; 김광수, 하용상, 2006; 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린, 2007; 김기범, 임효진, 2006;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서정선, 신희천, 2007; 오영희, 2004, 2006, 2007;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서 연구들은 외국의 용서 척도와 용서과정모형에 기초한 용서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수, 1999; 오영희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척도이다. 용서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척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서 척도들은 외국 척도들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서 척도는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이다.

EFI는 자신에게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Enright, 2000; Subkoviak et al., 1995). 성인용은 60문항(정서, 인지, 행동영역 각 20문항씩), 아동용은 30문항(정서, 인지 행동영역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박종호(2006, 2007)가 성인용과 아동용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EFI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항의 부적절성이다. EFI의 일부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낮설고 부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용서반응들이 빠져있다(오영희, 2004, 2006, 2007). 둘째, EFI 척도의 하위요인의 타당성이다. EFI는 인지 20문항, 정서 20문항, 행동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체 용서점수 외에 각 하위영역별 하위점수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많은 경우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은 분명하게 구별되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용서반응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오영희, 2006).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EFI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호, 2006).

마지막으로 EFI의 문항수가 너무 많다. 성인용 EFI는 60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예: 말기 암 환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용서연구에서 사

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많은 연구에서 EFI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98 ~ .99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조차 문항을 작성하면서 지루함과 피로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오영희, 2004, 2007). 또한 EFI 자체의 문항이 많기 때문에 연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제한되어서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용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간결하고 타당한 용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용서문헌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일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예비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용서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용서의 정의는 용서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는 크게 다르다. 둘째,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할 때도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인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 상

황을 용서하는 상황용서, 신을 용서하는 용서 등이 있다. 셋째, 용서를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특수상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서는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에 맞게 특수 상황적 대인 용서에 대한 척도를 먼저 개발하였다²⁾. 대인용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의들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광수, 2002; Enright & Fitzgibbons, 2000).

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행위이다. 특히 용서는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의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다. 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용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라고 하는 한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다(오영희, 1995; 최상진, 1991). 또한 용서는 쉽게

2) 용서를 일반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로는 Tangney, Fee, Reinsmith, Boone와 Lee(1999)의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MFI), Deshea(2003)의 Willingness to Forgive Scale(WFS), Thompson과 Snyder(2003)의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가 있다. HFS는 자기, 타인, 상황에 대한 용서성향을 다룬 18문항의 척도로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에는 Subkoviak 등(1995)의 EFI, McCullough 등(1998, 2000)의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TRIM)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대인용서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김지영, 권석만, 2009).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상처보다는 정신과 신체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더 효과적이다(Enright & Fitzgibbons, 2000).

둘째, 용서는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 반응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며,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즉, 용서는 심각한 부당한 상처를 받은 뒤에 생겨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이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에 대한 나쁜 생각, 분노, 보복 행동을 멈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서, 인지, 행동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자들은 용서와 화해를 명확히 구분한다(Enright & Fitzgibbons, 2000; 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Smedes, 1984; Trainer, 1981; Worthington Jr., 2005). 이들에 따르면 용서는 개인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내적인 치유지만, 화해는 2명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외적이고 행동적인 과정이며 관계가 치유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화해는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용서는 화해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을 뿐이며 화해는 용서보다 더 많은 조건(예: 상대방의 화해의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용서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뢰

도는 문항내적 일치도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1문항 용서 질문과의 상관, 용서와 비용서집단의 용서점수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준거관련타당도는 용서와 부적응 변인들(분노, 불안, 우울)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들은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20-50대의 성인 남녀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상처의 기준은 용서 척도에 있는 “그 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상처받지 않음)에서 5점(대단히 많은 상처를 받음)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보통이상으로 상처받음)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상처점수의 평균은 4.11(표준편차 .79)이며, 참여자들은 타인에게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자는 1183명이며,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한국인 용서 척도. 오영희(2008)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5문항)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기술과 평가를 하는 부분으

로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뒤에 상처의 심각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반응(정서, 인지,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24문항은 정서반응 9개(긍정 4개, 부정 5개), 인지반응 7개(긍정 3개, 부정 4개), 행동반응 8개(긍정 6개, 부정 2개)이다.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용서를 많이 한 것이다(범위: 24-120점). 오영희(2008)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5이었다.

1문항 용서 질문. 가해자를 어느 정도 용서했는

지를 직접 물어보는 1문항으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점('전혀 용서하지 않음')에서 5점('아주 많이 용서함')까지의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검구, 한덕용,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 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과 평상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특성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구분 | 특성 | 사례수 | 백분율 |
|-------|----------|-----|------|
| 성별 | 남자 | 561 | 47.4 |
| | 여자 | 622 | 52.6 |
| 연령별 | 20대 | 406 | 34.3 |
| | 30대 | 415 | 35.1 |
| | 40-50대 | 362 | 30.6 |
| 거주지역별 | 서울 | 449 | 38.0 |
| | 경기도 | 364 | 30.8 |
| | 충청도 | 38 | 3.2 |
| | 전라도 | 71 | 6.0 |
| | 경상도 | 244 | 20.6 |
| | 강원도 | 11 | 0.9 |
| 학력별 | 중학교졸업 | 20 | 1.7 |
| | 고등학교졸업 | 211 | 17.8 |
| | 대학교재학/중퇴 | 370 | 31.3 |
| | 대학교졸업 | 458 | 38.7 |
| | 대학원졸업 | 97 | 8.2 |
| 종교별 | 개신교 | 339 | 28.7 |
| | 가톨릭 | 184 | 15.6 |
| | 불교 | 196 | 16.6 |
| | 기타 | 9 | 0.8 |
| | 무교 | 450 | 38.0 |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검구 등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고, 특성분노 검사의 신뢰도는 .82 이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태분노 검사 .90, 특성분노 검사 .85로 나왔다. 상태분노와 특성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각 10-40점). 박종효(2006)는 EFI 타당화 연구에서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합친 점수를 이용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상태분노 점수와 특성분노 점수를 합친 총분노 점수를 구했다(범위: 20-80점).

불안 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199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상태불안 검사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특성불안 검사는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덕웅 등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94이고, 특성불안 검사 신뢰도는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는 .93, 특성불안 검사 신뢰도는 .92이었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 각 20-80점). 총불안 점수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점수를 합친 것이다(범위: 40-160점).

우울 척도.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

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정하였다. 전검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2가 나왔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0-60점).

절차와 자료 분석

2009년 5월에 서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인과 친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오게 하였다. 설문지는 분노척도, 불안척도, 우울척도, 용서척도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10-20분 정도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자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설문지 회수율은 약 80% 정도였지만, 이 중에서 용서 척도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응답했다라도 상처의 수준이 기준이하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11월에 추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2.0와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χ^2 , Cronbach α , Pearson r , t 검증, F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인 용서 점수가 성별과 연령(20대, 30대, 40-50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F(1, 1177) = .17, p > .05$, 연령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F(2, 1177) = 2.48, p > .05$. 또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F(2, 1177) = 2.77, p > .05$.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뢰도

한국인 용서 척도의 Cronbach α 는 .95로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각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문항별 기술통계치와 문항-총점 상관을 살펴보았다. 평균은 범위가 2.13-3.60으로 바닥이나 천정효과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표준편차들의 범위는 1.12-1.45로서 반응들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문항-총점 상관은 .45-.75로 양호하였다(부록 1 참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64명에게 4주 간격으로 용서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r = .85$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

오영희(2008)의 예비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OS 4.0을 이용하여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χ^2 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적합도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표 2를 보면 1요인 모형의 χ^2 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범위는 .45-.78이며, 모두 유의미하였다(부록 1에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얼마나 용서하였는지를 물어보는 1문항 용서 점수(범위 1-5점)와 한국인 용서 점수(범위 24-120점)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더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었다($r = .76, p < .001$). 즉, 한국인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용서 점수가 용서집단과 비용서 집단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문항 용서 점수를 이용해서 용서집단(4점 이상)과 비용서 집단(2점이하)로 나눈 후에 두 집단 간에 한국인

표 2.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 $\chi^2 (df)$ | p | χ^2/df | TLI | CFI | RMSEA |
|---------------|------|-------------|-----|-----|-------|
| 4297.76(252) | .000 | 17.05 | .93 | .94 | .12 |

용서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33.54$, $df = 733$, $p < .001$. 용서 집단(평균 85.52, 표준편차 17.72)은 비용서집단(평균 47.40, 표준편차 12.98)보다 용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인 용서 점수와 부적응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3에서 용서와 분노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용서는 상태분노와 $r = -.21$, 특성분노와 $r = -.19$, 총분노와는 $r = -.23$ 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용서와 불안과의 상관을 보면 용서는 상태불안과 $r = -.20$, 특성불안과 $r = -.20$, 총불안과 $r = -.21$ 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용서와 우울의 상관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19$, $p < .001$). 요약하면 용서를 많이 할수록 분노, 불안,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의 종류, 상처의 정도, 종교와 용서의 관계

한국인 용서척도에는 누구에게서 상처를 받았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서 이를 분석해 보았더니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가해자의 종류(기타 범주 제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 N = 931) = 89.10$, $p < .000$. 연령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인 20대는 가해자가 친구(29.0%)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업(학교생활) 관련자(25.7%) 이성친구(20.1%)의 순이었다. 반면에 30대는 직업 관련자(38.7%)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이 이성친구(21.3%), 친구(13.1%)였다. 40-50대는 30대와 같이 직업 관련자(35.3%)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있으나, 그 다음은 가족(25.2%)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특히 여자들의 경우 시부모나 시형제 등 시집식구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표 3.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용서 | | | | | | | | |
| 2. 상태분노 | -.21 | | | | | | | |
| 3. 특성분노 | -.19 | .48 | | | | | | |
| 4. 총분노 | -.23 | .84 | .88 | | | | | |
| 5. 상태불안 | -.20 | .60 | .40 | .57 | | | | |
| 6. 특성불안 | -.20 | .54 | .45 | .57 | .81 | | | |
| 7. 총불안 | -.21 | .60 | .45 | .60 | .95 | .95 | | |
| 8. 우울 | -.19 | .53 | .37 | .52 | .73 | .73 | .77 | |
| 평균 | 69.11 | 14.11 | 19.46 | 33.57 | 41.86 | 43.56 | 85.42 | 35.27 |
| 표준편차 | 20.78 | 4.27 | 4.86 | 7.85 | 10.78 | 10.60 | 20.33 | 10.01 |
| 문항내적일치도 | .95 | .90 | .85 | .90 | .93 | .92 | .96 | .92 |

$N = 1183$,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용서점수는 상처의 심각성($r = -.29$), 상처의 부당성($r = -.37$)과 모두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상처가 심각할수록, 상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용서점수는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간 용서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 = .88$, $df = 1176$, $p > .05$. 종교별(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어서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166) = 1.80$,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50대 성인 1183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용서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한국인 용서 척도는 높은 문항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Cronbach α 는 .95). 또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하였는데($r = .85$),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상당히 안정적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도 대체로 양호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 나 RMSEA는 좋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또 한국인 용서 점수는 1문항 용서 질문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r = .76$, $p < .001$)을 보였는데,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서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용서집단은 비용서집단보다 용서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

표 4. 상처를 준 사람¹

| 상처를 준 사람 | 20대 | 30대 | 40-50대 | 전체 |
|---------------------|-------------|-------------|-------------|-------------|
| | % (n) | % (n) | % (n) | % (n) |
| 친구 | 29.0 (107) | 13.1 (51) | 10.4 (35) | 17.6(193) |
| 이성친구(부부) | 20.1 (74) | 21.3 (83) | 9.8 (33) | 17.3(190) |
| 가족 | 14.6 (54) | 11.3 (44) | 25.2 (85) | 16.7(183) |
| 직계가족 | 12.7 (47) | 6.7 (26) | 17.2(58) | 12.0(131) |
| 기타가족 ² | 1.9 (7) | 4.6 (18) | 8.0 (27) | 4.7(52) |
| 직업 관련자 ³ | 25.7 (95) | 38.1 (151) | 35.3 (119) | 33.3(365) |
| 기타 ⁴ | 10.6 (39) | 15.6 (61) | 19.3 (65) | 15.1(165) |
| 계 | 100.0 (369) | 100.0 (390) | 100.0 (337) | 100.0(1096) |

1. 단순응답

2. 부부, 부모, 형제를 제외한 가족으로 시집식구(시부모, 시형제 등) 포함

3. 직업관련자는 학생은 동료 학생, 학교 선후배, 교수 등 학교생활 관련자이고, 직장인은 동료, 직장상사, 부하직원 등 직장생활 관련자를 말한다.

4. 이웃, 친목모임, 낯선 사람 등

5. $\chi^2(6, N = 931) = 89.10$, $p < .000$ (기타 범주를 제외한 4개의 상위범주 이용)

으로 나타났다.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수인 분노, 불안, 우울과 용서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0.19 \sim -0.23$ 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한국인 용서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종교의 유무, 종교의 종류(기독교, 불교, 무교)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용서반응이 단일 요인이냐 정서, 인지, 행동으로 구분되는 3요인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대표적 용서척도인 EFI는 인지 20문항, 정서 20문항, 행동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전체 용서 점수외에 각 하위영역별 하위점수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인지, 정서, 행동은 뚜렷하게 구별되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용서 반응을 조사했을 때 특히 정서와 인지측면을 구분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 예를 들어, 오영희(2006)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난 뒤 그 사람에 대한 ① 생각 ② 감정 ③ 행동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참여자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일부는 두 내용이 동일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EFI를 개발한 Enright는 본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EFI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3요인 구조가 분명

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요인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EFI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를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효,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EFI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문항들을 합쳐서 3요인 점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인 용서 척도의 예비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서반응은 인지, 정서, 행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3요인보다는 상호의존적이며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서 척도는 EFI이다. EFI와 한국인 용서 척도는 모두 특정한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 어느 척도가 더 양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교해 보았다. EFI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박종효(2006)의 타당화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먼저 두 척도의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문항내적 일치도는 한국판 EFI는 .99이고 한국인 용서 척도는 .95였다. 두 척도의 타당도를 비교해 보면 1문항 용서점수는 한국판 EFI 총점과는 $r = .73$, 한국인 용서 척도 총점과는 $r = .76$ 으로 거의 동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용서점수와 부적응 지표들과의 관계에서 한국판 EFI는 분노와

-.24, 불안과 -.35, 우울과 -.29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 용서 척도는 분노와 -.23, 불안과 -.21, 우울과 -.19의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EFI와 한국인 용서 척도는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EFI는 문화적 적절성, 요인구조, 문항수 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문항수도 훨씬 적고(EFI는 60문항, 한국인 용서 척도는 24문항), 내용과 표현에서 한국인에게 적절한 용서반응을 이용한 한국인 용서 척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인 20대는 친구(29.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업(학교생활) 관련자(25.7%) 이성 친구(20.1%)의 순이었다. 반면에 30대는 직업 관련자(38.7%)가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이 이성 친구(21.3%), 친구(13.1)였다. 40-50대는 30대와 같이 직업 관련자(35.3%)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있으나, 그 다음은 가족(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여자들의 경우 시부모나 시형제 등 시집식구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라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대-50대에 해당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용서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용서 척도를 타당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성별, 연령, 중

교에 따라 유의한 용서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척도는 20-50대의 성인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용서 척도의 특성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통이상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자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거주 지역은 수도권인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가 수도권이 많아지게 되었다. 앞으로 전국에서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여 타당화하고 전국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용서반응에 대한 예비연구에 기초해 볼 때 한국인 용서척도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적용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 용서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록 한국인 용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없는 문항만을 선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가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RMSEA가 .12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서문항들간에 공분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추후 연구에서 검사문항의 수를 줄인 단축형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용서척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예: 말기암 환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게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항이 적을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 척도들, 다른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특수 상황적 용서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용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 연구, 10, 165-191.

김광수, 하요상 (2006). 용서 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4), 909-930.

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련 (2007). 초등학교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정서교육 일 모형으로서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육연구, 20(3), 297-323.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청소년 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지영, 권석만(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민성길 (1991). 핏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 1189-1198.

박종호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박종호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박종호 (2007). 한국형 아동·청소년의 용서심리검사(EFI-C)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1(1), 265-281.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손운산(2009).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오영희(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초등학생용 교우관계 용서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99-200.

전경규,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19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39-350.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Calian, C. S. (1981). Christian faith as forgiveness. *Theology Today*, 37, 439-443.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241-244.
- Cunningham, B B. (1985). The will to forgive: A pastoral theological view of forgiv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4, 48-50.
- Droll, D. M. (1984). *Forgiveness: Theory and resear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Reno, USA.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241-244.
- Enright, R. D. (2000).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for Children*. Madison, WI: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and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Hillsdale, NJ: Erlbaum.
- Gouldner, A. W. (1973). *For sociolog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ology today*. London. Allen Lane.
- Hope, D. (1987).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 240-244.
- King, R. (200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Don't kill in our names*].(황근하 역). 서울: 산티.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W., et al .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ullet, E., & Girard, M. (2000). Developmental and cognitive points of view on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orrow, L. (1984). Why forgive? *Time*, January 9, 26-33.
- Murphy, J. G. (1982). Forgiveness and resentment.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7, 503-516.
- Sandage, S. J. & Williamson, I. (2005). Forgiveness in cultural context.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Shriver, D. W. (1995). *An ethic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edes, L. B. (1984). *Forgive &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 Row.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Lee, N. (1999).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of forgive*. Paper presente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ainer, M. (1981).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cted, 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USA.
- Worthington, Jr., L.(Ed.)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원고접수일: 2010년 2월 17일

게재결정일: 2010년 3월 13일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Forgiveness Scale

Young Hee Oh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Forgiveness Scale(KFS). The sample consisted of 1183 adults who had been hurt by others(age range: 20-50 years old). The measures included the KFS,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CES-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FS had high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alpha=.95$)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r=.85$).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rtly supported that the KFS had one factor. The KFS was highly correlated to one-item forgiveness question. In addition, the forgivenes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KFS scores than the non-forgiveness group. Finally, the KF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KFS ha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Korean forgiveness scale, reliability, validity

부록 1. 한국인 용서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표준화계수

| 영역 | 문항 | M(SD) | 문항-전체상관 | 표준화계수 |
|----|---|------------|---------|-------|
| 정서 | 1.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다. | 2.87(1.27) | .72 | .73 |
| | 2. 그 사람을 보면 반갑다. | 2.52(1.24) | .74 | .78 |
| | 3. 그 사람에게서 서운함을 느낀다. | 2.55(1.25) | .47 | .47 |
| | 4. 그 사람을 보면 힘들다. | 3.18(1.33) | .58 | .57 |
| | 5. 그 사람에게서 이전보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 | 2.13(1.12) | .65 | .68 |
| | 6. 그 사람에게서 화가 난다. ^E | 3.06(1.33) | .68 | .68 |
| | 7.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 2.46(1.15) | .70 | .72 |
| | 8.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 2.63(1.18) | .59 | .59 |
| | 9. 그 사람을 보면 서먹하다. | 3.01(1.33) | .63 | .63 |
| 인지 | 1.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 2.74(1.26) | .75 | .76 |
| | 2.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 | 2.75(1.34) | .74 | .76 |
| | 3.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란다. ^E | 3.19(1.31) | .65 | .70 |
| | 4.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E | 3.01(1.27) | .74 | .78 |
| | 5.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 3.28(1.33) | .46 | .45 |
| | 6.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33(1.19) | .58 | .61 |
| | 7.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 2.77(1.34) | .54 | .53 |
| 행동 | 1.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 3.12(1.29) | .74 | .76 |
| | 2.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 2.86(1.29) | .59 | .61 |
| | 3.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 2.85(1.22) | .72 | .75 |
| | 4.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 2.42(1.32) | .75 | .78 |
| | 5. 그 사람과 모임이나 활동을 함께 한다. | 2.44(1.37) | .61 | .64 |
| | 6.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2.90(1.27) | .74 | .77 |
| | 7. 이제는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 3.54(1.24) | .45 | .45 |
| | 8.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 | 3.60(1.44) | .59 | .61 |

1. ^E: EF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3개)
 2. 역산문항: 정서 1, 3, 4, 6, 9; 인지 1, 2, 5, 7; 행동 2, 8